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3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잠언·요한계시록·마태복음
구역예배·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배의 회복, 십자가의 은혜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15장
- 12 1과 하늘로부터 흐르는 긍휼
- 20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16장 ~ 요한계시록 21장
- 28 2과 두 종류의 제사
- 36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22장
 마태복음 1장 ~ 마태복음 5장
- 44 3과 두 종류의 죽음
- 52 매일성경묵상 시편 140편 ~ 시편 145편
- 60 4과 여호와 앞을 떠나서
- 68 매일성경묵상 시편 146편 ~ 시편 150편
 잠언 1장
- 76 5과 다른 씨
- 84 매일성경묵상 잠언 2장
- 86 부록 모세3

3

March 2014

주 일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2 제2차 성찬식	3 요한계시록 16장	4 요한계시록 17장	5 요한계시록 18장 사순절 새벽 기도 시작 (재의 날)
9	10 요한계시록 22장	11 마태복음 1장	12 마태복음 2장
16	17 시편 140편	18 시편 141편	19 시편 142편
23	24 시편 146편	25 시편 147편	26 시편 148편
30	31 잠언 2장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요한계시록 15장
6 요한계시록 19장	7 요한계시록 20장	8 요한계시록 21장
13 마태복음 3장	14 마태복음 4장	15 마태복음 5장
20 시편 143편	21 시편 144편	22 시편 145편
27 시편 149편	28 시편 150편	29 잠언 1장

교회 주요 일정

3월 2일

제2차 성찬식

3월 5일

사순절 새벽 기도 시작(재의 날)

나의 주요 일정

- ① 사순절기(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십자가의 은혜

하늘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공효는 이 땅에 넘치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4).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이며,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길 바랍니다.

2014년 3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GBS

HOLY BIBLE



어린 양의 노래

1

토요일

요한계시록 15장
찬송가 242장

묵상노트

요한계시록 15~16장에는 일곱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 7대재앙 재앙이 나옵니다. 15장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처럼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3절).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입니다(4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 한없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려 간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은혜받은 자들을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 이 전세계적인 구원의 은혜의 노래가 오늘 우리 삶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And sa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Great and marvelous are your deeds, Lord God Almighty. Just and true are your ways, King of the ages.(Rev. 15:3)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만국의 왕이요 거룩한 분임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증거 장막의 성전(5절)** :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성막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처성소가 있었다(출 38:21, 민 9:15).

기도노트



사순절과 회개

재의 수요일(3.5)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먹고 안 먹는 문제보다, TV를 보고 안 보는 미디어 금식의 여부보다 죄를 더욱 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란 회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이며 사회 사업가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에이즈로 판명이 났습니다. '세상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에이즈에 걸리나?' 조사를 해봤더니 6~7년 전에 큰 수술을 받을 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꿈쩍없이 환자가 되었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에이즈로 판명 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주셨는데, 나는 왜 낡고 얼마 남지 않은 다 늙은 육체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얼마를 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하고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회개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삶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나 요소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남도의 년부도 붙임

사순절 예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의 6번의 주일에는 각각 단계와 특색이 있다.

주일	내 용	성 구
1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음을 생각하며 지낸다.	마 4:1~10
2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마 4:11
3주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요 1:1~18
4주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 '사순절 중절' 또는 '휴양 주일' (休養 週日)이라고 불린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고난과 사탄과의 싸움 등을 다루는 사순절의 다른 주일과는 달리 딱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으로 말씀을 삼는다.	마 14:13~21
5주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일의 명칭은 주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때는 가롯 유다에게 팔리어 고난 받으셨던 주님에 대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	마 20:18~19
6주	즉 종려 주일(Palm Sunday)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군중들에 관계된 말씀을 본다.	마 21:1~11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늘로부터 흐르는 긍휼

|초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찬송|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누가복음 22:19~20

⁽²⁹⁾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³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 주일

3 월요일

☐ 요한계시록 16장

4 화요일

☐ 요한계시록 17장

5 수요일

☐ 요한계시록 18장

6 목요일

☐ 요한계시록 19장

7 금요일

☐ 요한계시록 20장

8 토요일

☐ 요한계시록 21장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 22:15).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 수난과 죽음에 대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잔치자리였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 주의 만찬인 성찬 예식에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성만찬은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신 긍휼의 식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만찬 식탁에서 자신의 몸을 ‘□□□ □□□’ 주는 내 몸이며, 자신의 피를 ‘□□□ □□□’ 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사실이 담겨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소 행하신 우리 주님의 실천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빌 2:6~8 _____

※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헌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훈하심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훈과 자비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일 3:10 _____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구원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 성경 암송,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을 암송한 후 써 보십시오.

롬 12:1 _____

그리스도의 긍휼은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총을 맛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때 전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 해산의 수고

갈 4:19 _____

2) 끊임없는 기도

골 1:3 _____

3) 기쁨으로 인내

골 1:24 _____

※ 지금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해 보세요.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하시며 주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복음으로 민족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성 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19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3

월요일

도둑 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찬송가 175장

묵상노트

일곱 천사가 가지고 오는 재앙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것을 쏟음으로써 결정적인 심판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모두 짐승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절)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출애굽 직전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한 민족에만 관련되었다면, 이 두 재앙은 그 범위가 세계적이며 영적인 차원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이제 땅 위에서 전개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15절).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 야마겟돈(16절) : 어떤 지리적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이 악을 최종적으로 멸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계 16:15)

“Behold, I come like a thief! Blessed is he who stays awake and keeps his clothes with him, so that he may not go naked and be shamefully exposed.” (Rev. 16:15)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음녀에게 내릴 심판

4

화요일

요한계시록 17장

찬송가 433장

묵상노트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탄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탈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진정한 세력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그 뒤에서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사탄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음녀는 세상에 거짓된 철학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어두운 죄악과 우상 숭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짐승 위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매우 화려해 보이지만(1~6절), 이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내 이루어집니다(7~18절).

음녀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지배력을 뜻합니다. 음녀는 멀리 있어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이거나 세상에 밀착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요일 2:16). 그러므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실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완악한 것인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They will make war against the Lamb, but the Lamb will overcome them because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and with him will be his called, chosen and faithful followers. (Rev. 17:14)

• **예수의 증인들(6절)** :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 **큰 생(18절)** : 과거나 미래와 한 성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것으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통해 나타나는 초역사적인 사탄의 악한 제도.

기도제목

- 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5

수요일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찬송가 426장

묵상노트

일곱 개의 대접에 담긴 재앙이 다 내리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18장은 천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선언(1~8절), 그에 대해 탄식하는 무리들의 애곡(9~20절),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21~2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악(3, 7, 19, 23~24절)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장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런 승리와 악한 자들의 애가를 대비하여 보여주며 사탄의 권세와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거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멸망은 그들의 불순종과 음행과 사치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듯이 죄악의 도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벨론 성의 심판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 받는 일이 없도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4절)고 말합니다. 사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분명이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 큰 성 바벨론(22절) :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빛 밝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는 과거의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으로 끝나게 된 미래적 전역사적 사건으로 부패한 역사와 나라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Then I heard another voice from heaven say: "Come out of her, my people, so that you will not share in her sins, so that you will not receive any of her plagues;(Rev. 18:4)

기도제목

① 주님이 걸어가신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피 뿌린 옷

6

독요일

요한계시록 19장

찬송가 87장

묵상노트

이제 종말에 임할 환난이 끝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1~5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6~10절),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전쟁(11~21절)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한 말씀(사 54:5~6)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 집 손님들로 비유하신 것에서도 나타납니다(막 2:19~20). 또한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했습니다(고후 11:2). 어린 양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6~10절)한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피 뿌린 옷”(13절)에 묻은 ‘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의미하거나 대적자와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이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피 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13절)이라 칭하는데,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요 1:1,14, 요일 1:1). 우리의 죄를 위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 날을 사모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 **여수의 증언(10절)** :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로 그분의 생애 가르친 십자가 죽음 등을 의미한다.

• **유함볼 붙는 옷(20절)** : 지옥과 같은 곳으로 무저갱과는 다르다. 무저갱은 사탄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임에 반해,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계 19:13)

He is dressed in a rob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the Word of God.(Rev. 19:13)

기도제목

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7

천 년 왕국과 심판

금요일

요한계시록 20장
찬송가 483장

묵상노트

천 년 왕국과 흰 보좌에 의한 최후 심판으로서, 사탄의 결박(1~3절), 천 년 왕국(4~6절), 곡과 마곡의 전쟁(7~10절), 최후 심판과 둘째 사망에 대해 말씀합니다(11~15절). 교회사를 보면 천 년 왕국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쟁에 앞서 우리는 천 년 왕국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눌러 놓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사탄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4~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에게 전하는 강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분명한 상급에 대한 이 메시지는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흰 보좌 앞에서 있습니다. 그 앞에 '생명책'이 있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15절).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된 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 무저갱(1절) : 무저갱은 70인역에서 심연의 물과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귀를 가두는 곳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5)

If anyone's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h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5)

기도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성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새 예루살렘

8

토요일

요한계시록 21장
찬송가 526장

묵상노트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제왕과 결전이 종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1~8절)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기록합니다(9~27절). 요한계시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제왕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1절)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이었습니다(겔 37:27).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십니다(4~5절).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새로운 사람이 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Nothing impure will ever enter it, nor will anyone who does what is shameful or deceitful, but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Rev. 21:27)

기도제목

- ① 천국을 소망하며 땅의 것을 버리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16절) : 정방형체인 지성소와 한 가지로 임재와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기도노트



은혜로운 사순절 지내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성경에 근원을 둔 사순절 40일의 기간은 그 기간이 실제로 40일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뜻이 중요하다. '40'이라는 숫자는 참회와 속죄로 우리의 생활을 쇠신하기를 촉구하며 신비롭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합당한 준비의 뜻이다. 즉 장차 성취할 중대한 사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보아야 한다. 이같이 사순절 또한 참회와 속죄로 은총에 감사하여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예수의 부활 축일을 희망에 벅찬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회개의 기간

사순절의 회개적 성격은 서방교회의 전례에서 잘 나타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은 단식일로 지내며 머리에 재를 엮었다. 사제의 제의는 자색으로 된 것을 피하였으며 미사에서 할렐루야와 대 영광송을 부르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금식, 금욕을 통하여 얻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되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영국교회에서 계속 행하여졌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종려주일과 성 금요일만 특별한 날로 꼽는다.

경건한 삶의 기간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는데,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며 바라는 소망의 지표를 바로 제시해 준다. 그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2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두 종류의 제사

| 초점 |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 찬송 |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본문 | 창세기 4:1~7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 하니라 ⁽²⁾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³⁾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⁴⁾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⁵⁾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⁶⁾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⁷⁾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9 주일

10 월요일

☐ 요한계시록 22장

11 화요일

☐ 마태복음 1장

12 수요일

☐ 마태복음 2장

13 목요일

☐ 마태복음 3장

14 금요일

☐ 마태복음 4장

15 토요일

☐ 마태복음 5장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가 드리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제사였고, 피의 제사였습니다.

창 3:21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긍휼이며 은혜였습니다. 이 은총 속에는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이 필요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적인 제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사

가인의 직업은 농사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창 3:19 _____

그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창 3:23).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창 4:3).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이 아벨처럼 얻은 것의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나 존경심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거절된 가인과 그의 제물

결국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비단 그의 제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 그의 제물, 두 가지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진정한 감사나 경배의 동기가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단지 그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으며, 가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 4:5 _____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화가 치밀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가인의 모습은 자기 의에 빠진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가인의 분노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창 4:6~7 _____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창세기 3:21에 나타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을 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향한 그의 경외심과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 4:4 _____

하나님께서서는 제물에 담긴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의 삶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히 11:4 _____

아벨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제사를 드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장 귀한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히 7:27 _____

벧전 3:18 _____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제물이나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아벨이 드린 제물과 어떤 점이 다른지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게 하소서.
- ③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평 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
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10

월요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찬송가 236장

묵상노트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7,12,20절)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새 예루살렘으로의 초대(11~12,15,17~19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요한이 살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외형을 묘사한 것에 반해 22장은 그 곳에서의 성도들의 새 삶을 묘사하는데, 예텐 동산적 삶을 회복하는 증표로 예텐 동산을 연상시키는 생명수 강과 생명 나무에 대해 말씀합니다(1~5절).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인해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수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7절). 따라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합니다(9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여야 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말씀에 쓰인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매일 아침 눈뜨며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서.”

• 두루마기를 뱉는 자들(14절) :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킨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Rev. 22:20)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메시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합니다. 이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고, 두 번째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이 계보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4명의 여인이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룓,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 있어 하찮아 보이는 여인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마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과 가슴 벅찬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1)

기도제목

- 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1)** :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소개했던 저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혈통적 법적 자격에 있어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다.

기도노트

마태복음 2장
찬송가 341장

묵상노트

아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2절)라고 물은 동방 박사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4절)고 물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를 인용하여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6절). 성경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종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아기 예수로 인하여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받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잔인한 살인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영적 무지로 인해 살인극을 벌인 헤롯 왕과 말씀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져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벨라오(22절) : 헤롯이 죽은 후 유대, 시리아, 예돔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이다. 그는 성격이 잔인했고 독한 정치를 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2)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Mt. 2:2)

기도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 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3절)는 말씀은 이사야 40:3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2절)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막 1:14~15).

참된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단기 선교에 모두 동참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Mt. 3:2)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안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예루사렐 석명(4절)** : 메뚜기는 사실상 정결한 음식 중의 하나이다(레 11:21~22). 그리고 석명은 야생 꿀을 말한다. 세례 요한은 의식주 생활에서도 자기민족을 철저히 거부하기 위하여 이런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기도노트

14

금요일

부르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찬송가 329장

묵상노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1~11절). 또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를 부르셨습니다(18~22절).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학문 없는(행 4:13) 어부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가 성의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한 후 동네에 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라며 즉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 거룩한 성(5절) : 누기복음 49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예루살렘 성전임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Mt. 4:19)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첫 메시지인 팔복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3~10절)입니다. 팔복을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선행 구절의 실천보다, 뒷 부분인 '천국이 그들의 것,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천국이 그들의 것' (3~10절)이라는 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의 복만 찾는 심령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애통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몸부림치면서 애통해 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연이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1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십자가의 길에서만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 25:34).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Mt. 5:11)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중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빼어 내버리라, 찢어 내 버리라(29~30절)** : 의사가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찢어 들어가는 그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에 비유하여 죄악의 오염에 대하여 철저히 저항할 것을 교훈한다.

기도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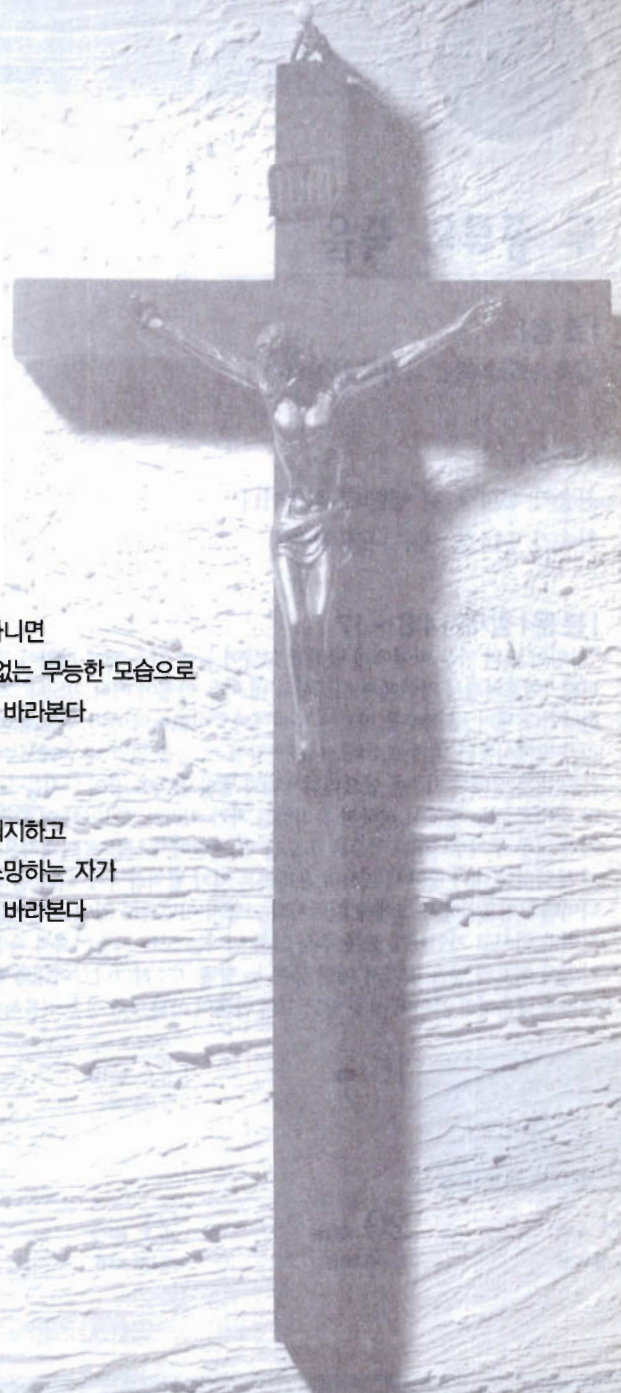
십자가 앞에서

스코필드

십자가 앞에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앞에서
죄악으로 관영한 죄인이
미움과 시기하는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살아가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두 종류의 죽음

| 초점 |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라

| 찬송 |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본문 | 창세기 4:8~17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 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를 내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 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뱐을 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 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넷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6 주일

17 월요일

□ 시편 140편

18 화요일

□ 시편 141편

19 수요일

□ 시편 142편

20 목요일

□ 시편 143편

21 금요일

□ 시편 144편

22 토요일

□ 시편 145편

하나님께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로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는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요일 3:12 _____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죽였기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제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거절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가인의 계획적인 살인과 거짓

가인의 범죄는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아벨을 처죽했습니다.

창 4:8 _____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가인의 대답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아벨의 거처를 물으신 이유는 가인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그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창 4:9 _____

가인이 거짓을 말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요 8:44 _____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과 가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질문은 그의 행위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 역시 가인에게 진실을 촉구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창 4:10 _____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가인은 자신에게 임한 저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농부인 그는 자신이 일구던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창 4:11), 오히려 안식의 땅에서 도망하며 유리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창 4:12).

창 4:11~12 이 그 입을 벌려 네 에서부터 네 아우의 를 받았으즉 네가
 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을 갈아도 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에서 피하며 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 악한 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로

가인은 비로소 죄의 대가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창 4:13).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통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창 4:14). 놀라운 것은 이런 호소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창 4:15).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_____

악한 자의 결심

가인은 여호위를 떠나서 에덴 동쪽 낯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창 4:16). 이제 가인은 자신이 스스로 자처한 저주대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어 한 평생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창 4:17).

반복된 하나님의 죽음

죄 없이 죽어간 아벨의 억울한 죽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아벨을 대신 살해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음으로써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일은 되풀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분노와 동일한 악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장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런 예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 ②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공 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3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illegible]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17

월요일

시편 140편
찬송가 400장

묵상노트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3)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본문에서 악인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죄의 올무가 있으며, 유혹의 함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악이며 내게 해가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려는 계락을 가지고 우리를 에워싸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탄과의 싸움을 ‘전쟁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7절).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6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7절). 그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며(8절),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12절). 이 시의 마지막 절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13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만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 **뜨거운 숯불(10절)** : 악인의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말로서, 소동과 고모라에 임한 유허불을 상기시켜 준다. 이 불은 악인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시 140:1)

Rescue me, O LORD, from evil men; protect me from men of violence. (Ps. 140:1)

기도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 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18

화요일

시편 141편

찬송가 412장

묵상노트

다윗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것과(1~6절) 행악자들의 박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7~10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2절). 그리고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악한 말과 욕망,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탄원이었습니다(3~4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악을 행하며 그러한 자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4절). 또 그는 환난 중에 그의 눈을 주께 향하여 주께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8~9절).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고후 6:14).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 관계가 지금은 우리에게 좋게 여겨져도 결국에는 멸망뿐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5절).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책망하는 소리를 길림돌로 여겨 주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요 6:61).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릴 때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시 141:8)

But my eyes are fixed on you, O Sovereign LORD; in you I take refuge--do not give me over to death. (Ps. 141:8)

•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시고(3절) : 다윗이 말을 절제하려는 것은 곧고 심혈수룩 입술로 범죄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신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종직재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시편 142편
찬송가 70장

묵상노트

다윗은 굴 속에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위축되고 절망될 때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3절).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위축되어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2절).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3절).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고통을 아는 자도 없고 실 만한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4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 영혼을 돌아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5절).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7절).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롬 6:14).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영혼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의 분깃(5절) : 하나님
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분깃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만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수 13:33).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시 142:1)

I cry aloud to the LORD; I lift up my voice to the LORD for mercy. (Ps. 142:1)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20

목요일

시편 143편

찬송가 305장

묵상노트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절).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심령은 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담할 뿐입니다(4절).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6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묵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11절).

다윗은 역경의 원인으로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의 본질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8절). 주님께서서는 그의 품으로 숨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9절).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황과 참담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2)

Do not bring your servant into judgment, for no one living is righteous before you.(Ps. 143:2)

• 공평한 땅(10절) : 사울의 추적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땅을 가리키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 쫓아올 수 없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 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4편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3절).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만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9절).

우리의 새 노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 넘쳐야 할 것입니다(계 5:9~10).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 하니”(계 5:13). 오직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14절) : 소의 달구지 에 추수한 곡식이 가득 하다는 의미로서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말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시 144:3)

O LORD, what is man that you care for him, the son of man that you think of him?(Ps. 144:3)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22

토요일

시편 145편

찬송가 508장

묵상노트

왕이신 하나님(1절)을 선포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여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4~7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2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처럼 주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는 주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향한 송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모든 세대의 입술에서 울려 퍼짐으로써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나라이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13절).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14절)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만남을 체험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능한 일을 땅 끝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시 14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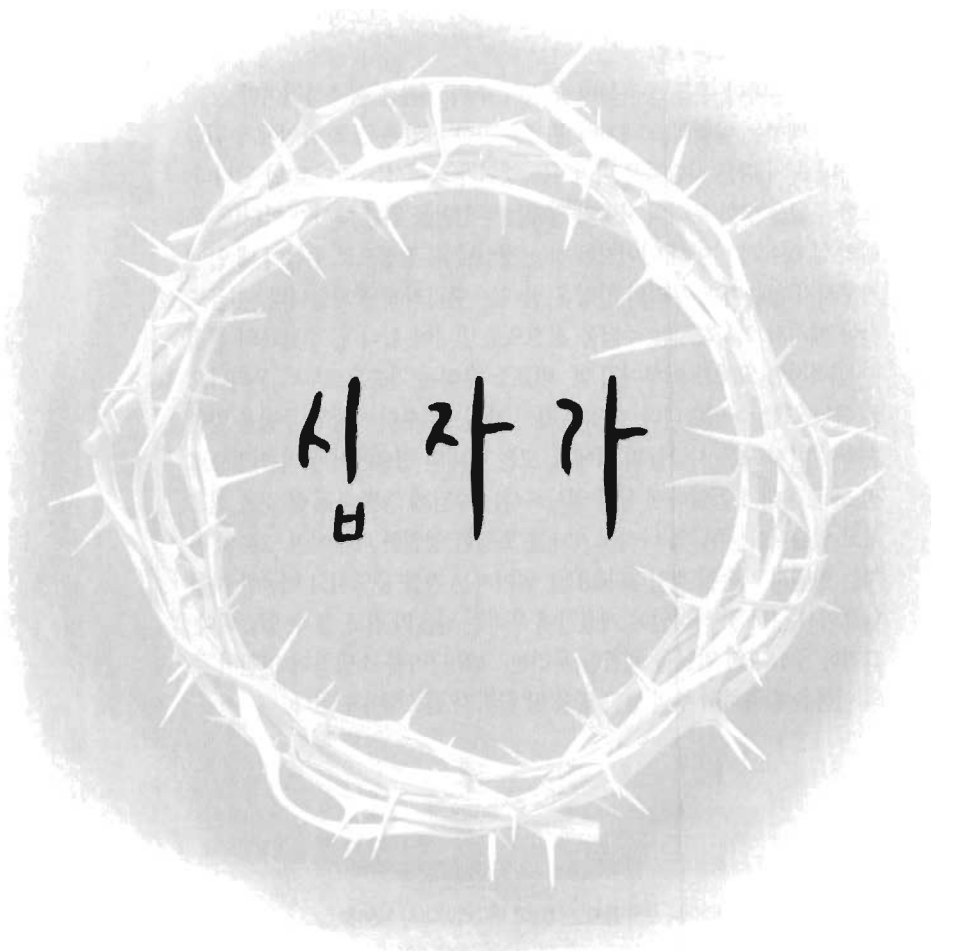
Your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your dominion endures through all generations. The LORD is faithful to all his promises and loving toward all he has made.(Ps. 145:13)

•비굴한 자(14절) : 인생의 처연, 의무 따위로 정신적으로 놀라 있는 자를 뜻한다.

기도제목

-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A detailed illustration of a crown of thorns, made of several intertwined, sharp, light-colored branches. It is set against a dark, textured, circular background that resembles a shadow or a hole in a wall.

십자가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사람들은 십자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해 제자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통해 축복과 건강과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 없는 축복, 건강, 형통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뛰어 넘는 은혜이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 아셀 인트레이터,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 초점 |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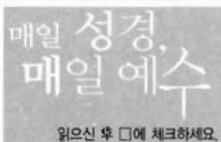
| 찬송 |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 본문 | 창세기 4:16~24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질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질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²³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질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3 주일

24 월요일
☐ 시편 146편

25 화요일
☐ 시편 147편

26 수요일
☐ 시편 148편

27 목요일
☐ 시편 149편

28 금요일
☐ 시편 150편

29 토요일
☐ 잠언 1장

형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떨어진 것처럼, 결국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저녁에 묵상하며 기도한 '매일성경묵상'을 나누어 보십시오.

에덴의 동쪽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몸이 멀어지고 난 이후에도 가인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성을 쌓았습니다.

창 4:17 _____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 가인에게 안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 다른 이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이와 같은 두려움은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이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 낸 문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창 4:19)라는 말씀을 통해서 일부다처제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일부일처제(창 2:24)에 반하는 새로운 결혼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두 아내를 취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왜곡 현상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일처의 문화권에서조차 음성적인 일부다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멕과 그를 통해 태어난 자손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4:19~24). 이들이 이룬 문명이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믿음이 이어져 가는 모습 또한 말씀합니다.

창 4:26 _____

하나님 없는 사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결혼생활에서 아내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응징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겠다는 악한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창 4:23 _____

라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창 4:24 _____

라멕은 하나님 없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스스로를 지배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을 다스리는 악한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 1:18 _____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눅 22:42 _____

※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 ②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 ③ 공동의회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뽑히게 하소서.

유혹에서 도우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18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
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
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9,11

24

월요일

시편 146편
찬송가 82장

묵상노트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1~2절). 잠시 잠깐에 불과한 우리의 생을 허무한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결국 흠으로 돌아가는 힘 없는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3~4절).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한 신실함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5~6절).

압박당하는 자와 주린 자 그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6~9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고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a).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해방시키시고 죄 때문에 억눌린 심령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7절) : 1차적으로는 고레스 칙령 이후의 포로 귀환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영적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아픔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시 146:5)

Blessed is he whose help is the God of Jacob, whose hope is in the LORD his God. (Ps. 146:5)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B.C. 586~538년)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느 12:27~43).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국가 재건이 완성된 이후 이스라엘은 군사·사회·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세 연으로 나누어진 이 시의 각 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니다. 중반부 7~11절은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후반부 12~20절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각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 능력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예시합니다(계 11:15~18).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시 147:1)

Praise the LORD. How good it is to sing praises to our God, how pleasant and fitting to praise him!(Ps. 147:1)

•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2절)** : 바벨론 유수(포로)를 계기로 세계 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Diaspora)를 가리키며, 오늘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영적 교아들을 지칭한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지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수요일

시편 148편
찬송가 79장

묵상노트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5절). 이 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창조주를 찬양하라는 예배의 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천상 세계로부터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온 우주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전체 분위기가 힘차고 박진감 넘칩니다.

1~6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7~10절에서는 지상 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1~13절에서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축복된 자세는 바로 일치된 찬양의 모습뿐입니다. 더욱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는 인간들이야말로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엡 1:12, 2:8~9).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 그의 백성의 불을(14절) : 그의 백성의 영광과 능력을 증진시켰다는 의미로서, 성도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뜻한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대시 148:5)

Let them praise the name of the LORD, for he commanded and they were created. (Ps. 148:5)

기도제목

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게 하소서. ② 총현 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재)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인류의 창조주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찬양을 촉구하는 감사예배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생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입니다. 특히 이 시에 나타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 줍니다. 전반부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5~9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에 따른 악인에 대한 심판과 그 의로운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찬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 43:21).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되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찬송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즐거이 찬송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로 인한 영혼의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이다(시 149:1)

Praise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his praise in the assembly of the saints.(Ps. 149:1)

• 두 날 가진 칼(6절): 사탄의 온갖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상징한다.

기도제목

- ① 주님이 가진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 ② 사순절(3.5-4.19)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8

호흡이 있는 자마다

금요일

시편 150편
찬송가 146장

묵상노트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맺는 다섯 시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시편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시편의 중심 주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6절)라는 권면입니다. 이런 찬양에 대한 권면은 여섯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에서(‘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무려 13차례나 나타납니다.

먼저 전반부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장소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어 중반부 3~5절에서는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 줍니다. 끝으로 후반부 6절에서는 찬양의 주체와 그 자세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끊임없이 찬양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찬양은 진정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끊임없이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인생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실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사역을 순종하며 걸으셨던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 성소, 권능의 궁창(1절) :
‘성소’는 단순히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정소를 가리키며 ‘권능의 궁창’ 역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s. 150:6)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29

토요일

잠언 1장

찬송가 144장

묵상노트

세상의 사람들 참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이나 고도의 수행에서 또는 자신을 열심으로 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7절).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미련한 자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의 지혜로 말씀하실 때마다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 평가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20). 이처럼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삶이 실존적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Prov. 1:7)

· 성문 어귀(21절) : 성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위해 모여 앉았던 곳으로(룻 4:11, 욥 29:7, 시편이 형성된 곳이며 왕하 7:1,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 대왕상 22:10), 따라서 이 곳은 고대 근동에서 성읍 내의 중심 장소였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선교를 준비하기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알고도 하지 않았다. 교회는 그저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출석하는 곳이었다. 선교 역시 나뉠의 인생 계획에 포함시켜 생각했다. 이번 선교 또한 100%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에 임했다. 그랬기에 내 힘으로 하려고 힘썼고, 적지 않은 경험도 있었기에 더욱더 내가 편한 쪽으로 하려고 머리를 굴렸다. 이렇게 준비를 계속해 나가던 중 2차 심사를 위해 로마서를 읽게 되었다. 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말씀 앞에 멈칫하게 되었다.

죽어가는 네팔 영혼들에게 전할 믿음은커녕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단 1%의 믿음도 없이 오직 한 세계, 나의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죄인이었다. 23년 동안 단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을 모르는 네팔인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격으로 8박 9일의 네팔 단기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내가 한 것이라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특고

참고

출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날, 목감기에 걸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육체적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의 손에는 전도지가 들려져 있었고,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준비해 온 언어와 찬송을 전하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간절한 건 마음뿐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차 안에 누워 복음 전하는 팀원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식 중에 내 육체, 내 의를 의지하고 있던 나를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셨다. 다음 날부터는 건강한 육체로 감사함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네팔 단기 선교를 통해 그저 준비해 간 언어를 읽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읽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 또한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전도지를 읽고, 영접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네팔인들을 보면서 많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지만 가장 큰 감격은 내가 이 전도지를 읽고, 전하며 “아멘!” 하며 외쳤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말씀 앞에 두렵지 않으며 네팔 땅에 뿌려진 복음이 자라날까 고민하지 않는다. 바로 나에게 믿음의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서지도 못하는 죄인인 나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박서정(대학부)

5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다른 씨

|초점|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회복하라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본문| 창세기 4:25~5:3

ᄃ5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ᄃ6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ᄃ7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ᄃ8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어셨더라 ᄃ9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0 주일

31 월요일

☐ 잠언 2장

1 화요일

☐ 마태복음 6장

2 수요일

☐ 마태복음 7장

3 목요일

☐ 마태복음 8장

4 금요일

☐ 마태복음 9장

5 토요일

☐ 마태복음 10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고, 하와는 그 낳은 아들에게 ‘대체되다’라는 뜻의 셋(Seth)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형제 간의 살인으로 고통에 빠져있던 하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아벨을 대신함

창 4:25 _____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하와에게 셋의 탄생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 고백 속에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셋을 통해 이어진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의지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는 셋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영적으로 셋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름 부름

창 4:26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했고, 에덴에서 쫓겨나 수고하는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들 가인의 난폭한 살인은 그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장차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날을 보여 주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역시 믿음으로 셋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처음에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셋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계보

창 5:1a 이것은 □ □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셋과 그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셈과 함과 야벳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5:1b~2 하나님이 □ □을 창조하실 때에 □ □ □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 □하셨고 그들이 □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 □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의 혈통적 계보를 기록하기 전에 다시금 자신이 행하신 인간 창조를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계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명하는 계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게 창조한 인간의 계보에 가인을 제외하고 셋과 그의 후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창 5:3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셋을 거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까지, 창세기 10장에서는 다시금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야벳과 함과 셈의 계보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를 기록하게 하였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 셋을 주셨음에 대한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 계획을 예고하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 시작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십자가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 ③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31

월요일

잠언 2장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그 길은 구부러지고

악인의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14~15절). 길이 구부러졌다는 말은 행위가 바르지 못하여 악으로 치우침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패역하여 악한 길, 즉 구부러진 길로 행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고 하는데(21절), 그 의미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얻었던 가난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새 땅”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주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 **행실이 온전한 자(7절)** : 문자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자'이다. 이는 절대적 의미에서 무흠한 자를 뜻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주요 원리로 삼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 2:8)

for he guards the course of the just and protects the way of his faithful ones. (Prov. 2:8)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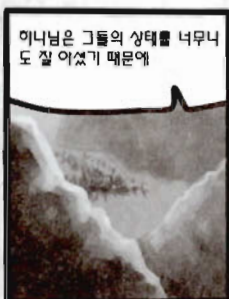
1997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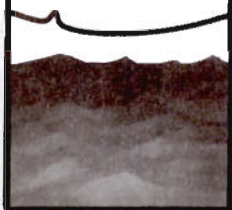


모세3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홍예는 세상과 하나님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쫓이오
는 애굽군대를 보고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모세는 두려워 말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선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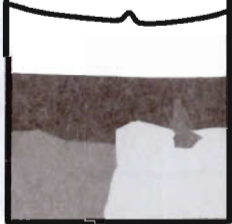
결국 홍예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지만



애굽군사들은 모두 바닷물에
잠겨 죽게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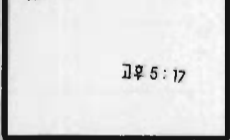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과 같은
의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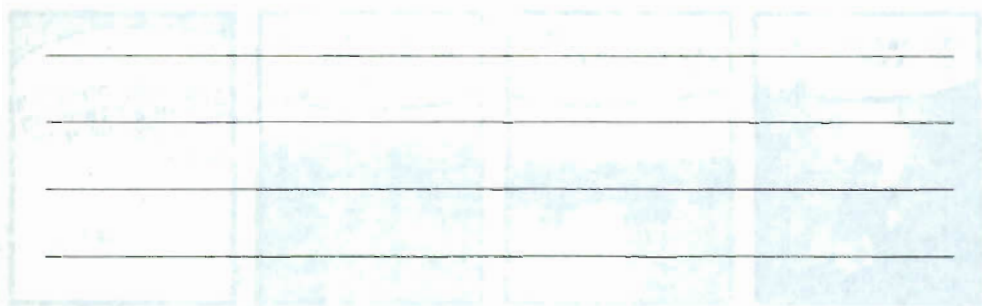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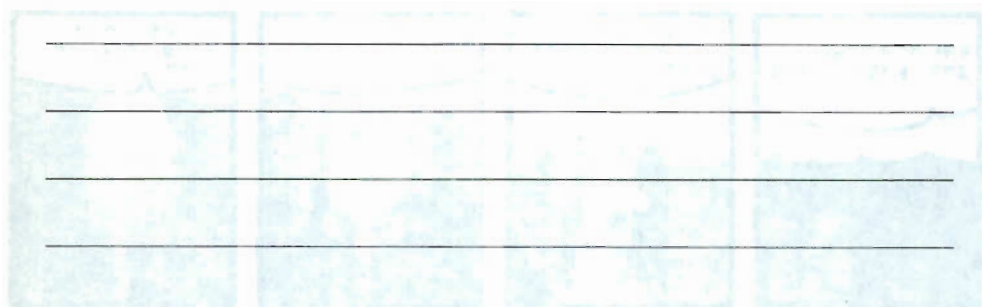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 사람이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3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물]